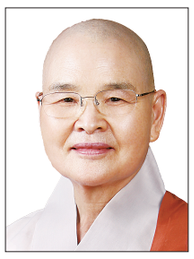
“정법 의지해 희망의 길 나아가자”

광용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올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명까지 앗아간 지옥같은 산불 재앙까지 덮쳤으니,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눈물로 애를 태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밤을 새운 날이 아직도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사회를 더욱 위태롭게 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은 최상의 빛이요,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환히 밝혀졌으니, 고통의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화합과 지혜의 힘으로 해결하고, 정법을 의지해 바른길, 희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배려와 자비의 마음 싹 틔워야”

지몽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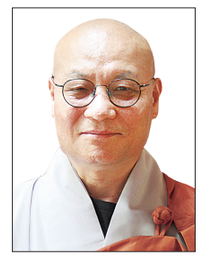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하기를 발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인식하든 못하든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집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차별과 불평등, 집단 간 갈등 등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고 배려해주는 자비의 마음을 싹 틔우고 꽃 피워야 합니다. 이렇게 시나브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다보면 어느덧 우리와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환경보살의 행원에 함께해 주길”

법만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화엄경〉에 이르기를 “보살이 한량없는 곳에서 여래의 몸을 보나니, 어째서인가? 한 법과, 한 일과 한 몸과 한 국토와 한 중생에서 여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체 곳에서 여래를 보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만 부처님오신날이 아니라 365일이 모두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주변 이웃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고통을 나누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와 남을 구분 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환경보살의 행원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임을 잊지말자”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온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어리석은 중생이 아닌 이 우주의 중심이며 주인이고,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날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봉행하고 참된 믿음을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 온 세상 가득하길”

윤재웅 동국대 총장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이 계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지혜와 자비의 무한광명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대형 산불로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엄숙한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문화유산마저 화마에 소실된 참담한 현실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이 위안을 얻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뭇생명의 희망과 평안 기원”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이 세상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진리의 길을 밝혀주신 찬란한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등불이 되어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큰 뜻을 가슴에 깊이 새겨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 함께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봉축이 모든 생명에게 희망과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상대 아픔 헤아려 함께 잘 살자”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길은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수행의 길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닌, 함께 잘 사는 길을 찾는 것,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이의 삶에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우리 사회 평안으로 대립 종식되길”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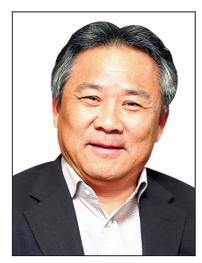


사회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인류는 평화와 행복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이신 자비와 통찰명상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종단의 선명상 수행으로 갈등과 반목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불교문화해설사와 명상상담사 양성에 힘쓰고 있는 포교사단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온 누리에 구현되고 우리 사회가 평안으로 대립이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지혜의 등불로 세상 밝히자”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깊은 봉축의 마음을 올립니다.

불교리더스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실천이 절실한 시기에 단지 믿고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다양한 불교적 지혜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와 시대에 응답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임을 믿습니다.

“말과 글로 세상에 희망 전하겠다”

김보배 한국불교기자협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밝혀지는 연등 하나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자비의 손길입니다. 우리 한국불교기자협회 회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말과 글로 진실을 전하고 어두운 곳을 밝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연등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그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처님오신날을 깊이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는 청년불자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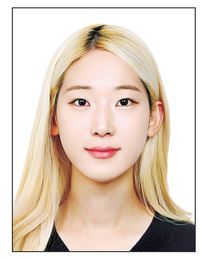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는 중도와 상생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 시대의 빛이자 희망이 됩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의지와 끊임없는 정진으로 부처님의 법을 지켜가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빛과 희망을 전하는 청년불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삶 속에서 실천”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깨달음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고통으로 가득한 삼계를 편안하게 하시려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며 온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이자 실천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들고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향한 길에 앞장설 것을 발원합니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주지 혜일 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